봉축 앞둔 賞春 갤러리서 즐겨볼까?

전시회 3題

문화의 거리 서울 인사동에 봄이 찾아왔다. 한산했던 골목이 북적거리고, 겨우내 움츠린 갤러리들이 다시 문을 활짝 열었다. 이곳저곳 전시회를 구경 다니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경쾌하다.

전시 풍년 속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전시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 불교적이면서도 선(禪)적인 불교 전시는 불자들에게 큰 봉축 선물이 아닐까 싶다. 이에 본격적인 봉축 기간을 앞두고 정성스런 작품들로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불교 관련 전시 3선을 소개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걱정마 내가 듣고 있어. 양선희 作

여성화 된 관세음보살 '내 어머니 같구나'

양선희 작가 6번째 개인전 '관음32응신'
4월 26일~5월 2일 라메르갤러리에서

여성화된 관세음보살의 모습은 왠지 더 자비롭고 인자하다. 가늘게 뻗친 손이 고통 받는 모든 중생들에게 닿아 마침내 내 슬픔도 보듬어줄 듯하다. 반듯한 선과 따뜻한 색감으로 표현된 양선희 작가의 관세음보살상은 마치 내 어머니인양 그 품에 안겨 보고픈 마음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한국 불화의 세계화, 현대화를 추구하는 양선희 작가(국가무형문화재 단천장 전수교육조교)의 '관음32응신' 展이 4월 26일~5월 2일 인사동 라메르갤러리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양 작가의 6번째 개인전으로 관세음보살 작품 42점이 소개된다.

'관음32응신'은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는 32가지 다른 모습을 전통과 현대의 이중기법으로 그려낸 작품들이다. 대중의 아픔과 고뇌, 질병, 소원 등을 대하는 관세음보살의 다양한 상징과 자비심이 깊이 표현됐다. 특히 현대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관세음보살의 헌신과 연민의 모습을 담아냈다.

양 작가는 "무불(無佛) 시대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뇌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 모습을 시대적인 화상으로 구현하고자 붓선을 잡았다"며 "전통불화의 계승이 과거엔 원형유지에 집중됐지만 이젠 기법은 유지하되 현대에 맞게 발전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화된 관음상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관음보살은 어원적, 교리적으로 남성으로 전해진다. 대승의 〈비화경(悲華經)〉에서 관세음은 무량정 전륜성왕의 왕태자로, 〈80화엄경〉에선 용맹장부 관자재로 나타난다. 그러나 힌두신앙의 여신들을 포섭해 밀교화하는 과정에서 여성화의 가능성이 극대화돼 여성보살로 알려진 것이다.

양 작가의 '관음32응신' 展은 6월 중 미국 뉴욕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양 작가의 '관음32응신' 작품 42점 중 20점은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리는 관음기도〉에도 실린다. 민족사가 5월 1일 발간하는 이 책은 스토리를 따라 읽고, 경전을 베껴 쓰고,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색칠하며 관음기도에 임하는 책이다.

생명 탄생의 경이로움, 꽃으로 표현하다

허회태 작가인생 55년 기념 개인전
'생명의 꽃' 시리즈 작품 45점 선봬

한 생명의 탄생을 꽃으로 승화시켰다. 하나의 점이 무한 공간으로 퍼져가는 모습이 마치 생명이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허회태 작가의 개인전 '생명의 꽃'이 4월 26일~5월 2일 인사동 가나인사아트센터 본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허 작가의 작품인생 55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에선 '생명의 꽃(Flower of Life)' 작품 45점이 소개된다.

'생명의 꽃'은 신성한 기운으로 움트는 생명 모습을 하나의 꽃이 피는 것처럼 묘사한 작품들이다. 하나의 작은 점에서 선으로 확장되는 파장이 관람객들에게 생명이 역동하는 듯한 감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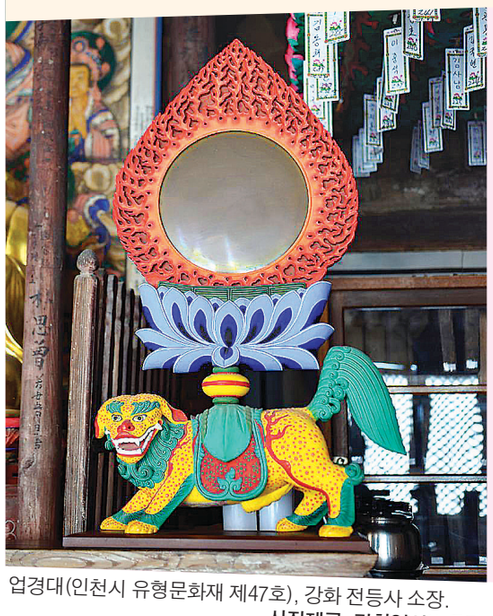
허 작가는 "이번 작품들은 생명의 근원에 접근하는 철학적 경지를 보여준다"며 "조각들을 화면에 채워 내가 생각하는 탄생의 위대함을 가시화했다. 심오한 매력으로 관람객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화 작품 뿐 아니라 3D 형식의 조형작품은 허 작가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눈길을 끈다. 내세에 무한한 생명을 부여하는 '재생'의 상징으로 연꽃을 표현한 작품〈사진〉은 연꽃 속 생명력을 형상화하기 위해 부조(浮彫) 기법을 활용, 재료를 자르고 붙이는 작업을 총 3단계에 걸쳐 완성했다. 특히 허 작가의 사상 철학을 붓으로 한지에 적어 표면에 덧대 만다라 형상을 나타냈다.

허 작가는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그 잎과 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밝은 꽃을 피운다"며 "주변의 잘못된 것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인간세상을 꿈꾸며 연꽃의 의미를 작품에 담았다"고 말했다.

허회태 작가는 서예 · 전각 · 한국화를 섭렵해 현대미술과 융합 접목한 새 예술 장르 이모그래피(emography)를 창시, ABC 및 FOX 등 해외 언론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현재 카이로스 허회태미술관장, 연변대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 미술세계아카데미 이모그래피 지도교수, 예술의전당 서예아카데미 지도교수, 무산서예이모그래피 연구원장 등을 맡고 있다.


Flower of Life, 허회태 作


업경대(인천시 유형문화재 제47호), 강화 전등사 소장.
사진제공=강화역사박물관

불교 보물 수장고 속으로 떠나보자

불교중앙박물관, 기림사 건칠불 특별공개 5월 21일까지
강화역사박물관, 전등사 명부전 삼존상 · 시왕상 등 전시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현조)은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보물 제415호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을 4월 20일~5월 21일 특별 공개한다.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은 건칠기법으로 조성됐다. 건칠기법은 삼베에 옻칠을 여러 번 반복하는 기법으로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은 이국적이고도 단아한 상호와 세련되고 간략한 옷 주름, 균형 잡힌 신체의 표현으로 정평이 났다.

특히 이 보살상의 대좌엔 묵서가 남아 있어 정확한 조성연대와 존명을 알 수 있다. '홍치십사년신유정월시지사월초파일 신라함월산서수암당주조낙산ㅇ관음보살조불 弘治十四年辛酉正月始至四月初八日 新羅含月山西水庵堂主造洛山ㅇ觀音菩薩造佛'이라는 내용으로 1501년(연산군 7)에 조성된 관세음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불교중앙박물관 측은 "이 보살상은 조성연대가 확실해 조선 초기 불교미술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화 전등사 명부전에 봉안된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보물 제1786호) 등의 복장유물 및 전등사 소장 유물들이 6월 25일까지 강화역사박물관에서 전시된다.

특히 명부전 삼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 다라니, 후령통,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및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등의 불경, 직물 등 다수 복장유물과 보물 제1908호로 지정된 묘법연화경 목판, 업경대(인천시 유형문화재 제47호) 등이 공개된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이번 전시회는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강화군에 제10회 고려산 진달래 축제를 맞아 찾는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우리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석가세존 제삼심삼 존자 조사
- 12지신 전생의 인연법 -



석가세존 인연법에 따라 자기띠 월에 맞는 존자님께 기도하면 소원성취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행운달마사에서는 제 33조사 존영과 제칠불보살님을 함께 모시어 기도 발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불자님들의 성원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일 마하가섭존자부터 제33대감혜능(육조혜능)대사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사에 알려지지 않은 서른세분의 존상들은 참으로 상상키 어려운 지혜로움과 신통자재하고 무한 자비로운 상호를 갖추고 계십니다. 이에 33존자님들을 황토액자 위에 표현하여 직접뵙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행운달마사 주지 혜용 합장

존자 액자 특징
- 액자는 각 존자님들의 존영을 황토 바탕에 그린것입니다.
- 황토 액자속의 열선이 있어 120℃까지 온도가 올라가 복사열이 발생됩니다.
- 인연법에 따른 자기띠에 맞는 존자님을 알려드립니다.

울산 행운달마사 052)242-0108, 010-2003-0658

청운 감로 클로렐라
<음료식품>



클로렐라는
식물성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복합 당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소, 염록소, 핵산, 베타 카로테노이드, 플라보이드, 류틴 등의 항산화재 식물성 영양 성분, 스테롤, 감마 리놀렌산 등 천연의 식물성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관방법 및 음용방법
냉장 보관하시고 드실 때 밑에 가라앉은 입자는 몸에 좋은 영양소인 미생물 플랑크톤이므로 꼭 흔들어서 드십시오.

그라비올라로 가공하여 만든 이 클로렐라 음료는 스님 불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탄생한 음료입니다.
그라비올라는 1976년 미국 국립 암센터에서 잎과 줄기의 추출물은 악성세포를 파괴하여 거의 대부분의 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아마존의 그라비올라는 항암효과 및 면역체계보호, 경련감소, 박테이아궤멸,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피부질환, 기침, 독감, 설사, 소화촉진 등에 좋습니다.

■ 제품가격 : 1병 1만원 (최소 주문수량은 10병입니다.)

제품문의 : 백련사 031)673-1087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경북 안동시 풍산읍 높은산고지에서 약사사스님이
3년생 토종하수오를 농사 지어 정성껏 만든
토종하수오 진액을 판매 합니다.

◆하수오의 효능 : 신체노화 방지, 탈모와 흰머리를 검게해주고 모발건강에 효능, 관절염 무릎통증에도 효과, 신장기능을 강화시킴,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강화, 동맥경화예방에 좋은 효능, 염증을 완화, 가래와 담을 제거, 종기나 치질, 만성피로의 개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하는 작용, 갱년기에 좋고, 고지혈증, 빈혈,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니 드시고 백세인생을 건강하게 사세요.

제품문의 : H·P 010-9692-5775
▸금액 : 150.000원 (무료배송) 50팩
입금 : 농협 351-0450-9156-23 [예금주 : 약사사]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 3리 11번지 대한불교 약사사

